

전주시, 책 문화 산업 육성 집중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비전... 도서관본부 4대 추진전략 제시

독서문화 확산·이용자 중심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인프라 확충 등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답게 2025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도적인 독서문화 정책을 펼치고, 도서관과 서점, 출판계, 지역작가 등의 역할을 모아 책 문화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 도서관 여행

시는 9일 도서관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책의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독서·출판·도서관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 △모두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독서에서 산업으로, 책문화산업 활성화 △지역 활력을 높이는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이다.

먼저 시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 △전주독서대전 등 책을 매개로 한 3대 책 문화축제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과 책문화사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과 교류하고, 그림책 관련 체험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

다. 또, 오는 6월에는 독립출판물과 아트북 작가들이 신작을 홍보·판매하는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로 8회를 맞는 ‘전주독서대전’은 책을 주제로 시민과 교육계, 언론계, 동네서점, 작가, 출판사 등 모든 독서생태계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2300여 명이 참여한 전주도서관 여행의 경우 올해 전주 문화공간을 도서관 여행 코스에 추가해 기존 6개 코스에서 9개 코스로 늘리고, 야간 경관이 아름다운 도서관과 한옥마을을 산책하는 코스, 전주대표 3대 책문화축제와 연계한 도서관 여행 코스 등 특별 도서관 여행 코스로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일도 하며 휴식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과 특수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여행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독서열을 올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별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유아 대상 생애 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독서교실, 방학특강, 책놀이 등 어린이 대상 독서진흥 프로그램 △12~16세 트윈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우주로 1216’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청·장년층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인문학 강좌 △시니어 대상 독서 치유 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시는 시민의 독서열을 올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 20’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고전 100권 함께 읽기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제14회 독서마라톤 대회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책을 읽는 시민들에

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및 출판 제작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출판문화산업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작은도서관과 지역작가·지역서점 등과 협력해 주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책 축제를 개최하고, 독립출판 및 1인 출판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출판학교’와 지역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전주도서관 출판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된 서신·완산·죽림도서관에 이어 올해는 이중호수 내 음악테마로 한 ‘이중호수도서관’과 예곡시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예곡도서관’을 개관해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이중도서관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사업들을 통해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함께 읽고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책문화산업이 전주의 경쟁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전주시는 전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선제적 시설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전진기지를 본격 가동했다.

겨울철 제설 전진기지 본격 가동

전주시, 대설주의보 발효 따라... 도심지 4개 권역 대상

전주시는 전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선제적 제설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전진기지를 본격 가동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포함한 587km의 도로와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제설 개선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철거 부지에 제설 전진기지를 구축·운영한다.

이곳은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백제대로에 위치하고 완산구와 덕진구가 맞닿은 곳으로, 서신·만성·노송·팔복 등 주요 도심지 4개 권역에 대해 시

외곽에 위치한 완산·덕진구의 도로 관리사업소보다 먼저 장비 및 인력 투입이 가능해 제설작업의 접근성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진기지 운영과 더불어 제설작업 차량의 GPS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제설 상황 관리를 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제설차량별 운행 동선과 작업 시간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장비별 배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도시 전역의 제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극심한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전진기지 운영 및 GPS 시스템 도입으로 철저한 대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도내 송전선로 설치 반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오광석 무주군의회장 제안 결의안 채택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촉구 등도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9일 익산시의회에서 제288차 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전북권 광역전철망(서철) 구축 결의안,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먼저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이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전북 대부분 시·군 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

다. 이에 협의회는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지역부터 쓰는 지산지소(地產地消)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뤄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서철) 구축 결의안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호남선·전라선·장항선과 신설 예정인 서해선·새만금선 등 철도 연결을 통한 미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권 광역전철망(서철) 구축 사업은 도내 주요 도시 간 철도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9일 익산시의회에서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및 정기총회.

광역 생활권 및 경제권 활성화, 여객수송 및 물류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협의회는 “도내 주요 도시 간 교류로 생활권·경제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광역전철망(서철) 구축 사업에 도내 도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결의안’은 지역발전과 국

가 균형발전 및 지방 활성화 실현을 위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승인, 협력체계 구축 및 인프라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실현하는 상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2036년 하계올림픽이 자연과 문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돼야 한다”며 정부의 올림픽 유치 의사 적극 표명, 중앙-지방 정부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김익기 기자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전주시 가족센터’ 출범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전주시가족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가족 구성원의 유형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했던 가족 시설이 올해부터는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가족센터’로 일원화해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2일과 3

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직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족센터의 미션 및 비전, 핵심가치 발표 △구성원 상호 소개 △사업별 업무보고 및 공유 △2025년 사업 운영 방향 및 계획수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으로서 전문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워크숍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간 일체감을 형성해 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아이 돌봄 등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2일과 3

남원 시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남원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늘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